

産業支援의 原則과 現況 및 改善方向

楊 秀 吉

▷ 目 次 ◁

- I. 序 言
- II. 産業支援의 原則
- III. 韓國工業化의 評價와 展望
- IV. 産業支援의 現況
- V. 産業支援政策의 改善方向

I. 序 言

우리經濟가 昨今 겪고 있는 痛症과 轉換은 過去의 産業支援方式上的 問題에 크게 基因한 것인 만큼 將次 우리經濟가 當面한 試鍊을 克服하고 얼마나 順坦한 發展의 軌道에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은 經濟政策側面에서는 앞으로 採擇될 産業支援制度에 의해서 左右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現在 産業支援制度의 改編方向에 非常한 關心이 傾注되고 있음은 當然한 일이나 不幸히도 具體的 政策의 樹立에 實質的인 寄與를 할 수 있는 理論과 資料의 提示가 아쉬운 것이 事實이다.

本稿의 趣旨은 이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메꾸어 보자는 데에 있다. 本稿의 目的은 産業開發政策의 理論的 根據와 要件을 整理, 樹立하고 또한 韓國의 産業支援現況을 實證的으로 把握하여 本 後 産業支援政策의 改善方向을 政策擔當者에게 提示하여 보자는 것이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第II章에서는 韓國의 對外指向의 産業開發戰略의 理論的 根據를 檢討한 後 그에 準한 産業支援原則을 樹立한다. 第III章에서는 昨今의 韓國의 産業化政策을 評價·反省하고 向後의 産業開發方向을 展望한다.

第IV章에서는 現産業支援體制의 構造와 特性을 把握하고 그것을 앞의 原則論에 비추어 批判한다. 第V章에서는 結論的으로 앞으로의 改善方向을 概略的으로 提示하여 본다.

本稿는 韓國의 産業支援現況을 實證的으로 把握하고 그 結果를 體系化된 産業支援理論에 비추어 綜合的으로 評價하여 보자는 試圖인 것이 그 特徵이나 不幸히도 紙面關係上 別로 基礎資料를 收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諸般資料가 本稿와 同題目으로 곧 出刊될 報告書에 收錄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여기에 提示되는 見解와 資料는 어디까지나 暫定的인 것이지만 產業政策에 關心있는 人士들의 研究 및 討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于先 發表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II. 產業支援의 原則

1. 對外指向의 論理

產業開發의 基本方向을 樹立함에 있어서 一國은 輸入代替에 의한 工業化와 輸出擴大에 의한 工業化의 두 戰略中 하나를 우선 택하여야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國經濟의 成功的 工業化와 高度成長은 그동안 後者, 즉 소위 對外指向戰略에 의하여 可能하였고 또한 將次에도 마찬가지로 戰略을 必要로 하는 바 이러한 戰略의 最大活用을 위해서는 그 戰略의 論理的 根據를 確實히 把握하고 그에 充實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趣旨에서 本節에서는 對外指向戰略의 優越性을 輸入代替戰略과 簡略히 比較·檢討한다¹⁾.

輸入代替戰略과 對外指向戰略은 國際貿易의 消極的 利用과 積極的 利用을 各其 意圖한다. 이러한 立場의 差異는 國際貿易(增大)의 惠擇과 幣害의 比重을 달리 評價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國際貿易의 惠擇은 다음과 같이 列舉될 수 있다.

- 國際的 比較優位에 따른 生産은 分業과 交換으로 인한 消費領域增大效果를 준다.
- 分業은 또한 產業別市場擴大를 通해 規模 經濟效果를 取得케 한다.
- 國際競爭으로 인해 生産效率化와 技術向上 및 品質改善의 努力이 強化되는 競爭 力提高促進效果가 있다.
- 國際競爭으로 國內獨寡占이 牽制 또는 自動規制된다.
- 새로운 製品, 先進的 思考方式과 效率的 規範이 持續적으로 導入되는 發展導入效果가 있다.
- 天然資源賦存上의 制約을 克服케 한다.
- 資本과 技術의 不足을 導入에 의해서 克服케 한다.

反面에 國際貿易의 幣害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主張되곤 한다.

- 開途國의 比較優位는 一次產品에 있어 工業化가 어려우며 一次產品의 交易條件은 惡化되기 마련이다.
- 國家經濟가 國際經濟與件變化에 敏感하여 진다.
- 輸入代替를 通한 學習의 機會를 喪失한다

以上에서 國際貿易의 惠擇은 주로 論理的인 것이며 따라서 反論의 餘地가 別로 없는 것들인데 比하여 國際貿易의 幣害는 說得力이 弱한 經驗的 主張들이라 하겠다.

對外指向戰略下에 開途國의 工業化가 어렵다는 R. Prebisch教授의 主張은 韓國 등 여러 新興工業國들의 登場이 그 反證이라 하겠고 또한 一次產品의 交易條件惡化論 自體도 70年代에 들어서서 無意味해졌다고 볼 수 있다.

國際經濟의 與件變化는 國內經濟自體는 相

1) Keesing(1979) 참조.

對的으로 安定되어 있을 때에 問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國內經濟의 變化가 外部로 傳播되고 때로는 國際經濟의 變化가 國內로 傳播되기도 하면서 內外經濟는 貿易을 통하여 갑작스런 與件을 나누어 吸收하는 相互保險關係가 있다는 觀點에서 國內外相關關係를 接近하여야 할 것이다.

開放體制를 止揚하는 나라도 對外交易을 全的으로 避할 수는 없으며 이런 點에서는 外部衝擊만을 考慮하더라도 對外指向體制의 強點이 浮刻된다. 即 輸入代替經濟도 石油波動과 같은 外部衝擊을 謀免할 길은 없는 데 對外指向經濟는 輸入緊縮의 餘裕(Compressibility)가 보다 커서 外部衝擊에 보다 伸縮的으로 對應할 수 있고 또한 國際競爭에서 단련된 企業들의 存在는 對外指向經濟의 伸縮的 對應能力을 높여 주는 것이다.

輸入代替가 學習現象이란 것은 妥當한 解析이다. 그러나 動態的 現象으로서의 產業發展 自體 역시 하나의 學習現象인 것이다²⁾. 따라서 包括的 輸入代替戰略과 對外指向戰略도 兩者 모두 궁극적으로 輸入代替에 대한 接近代案이며 效果의 學習에 대한 方法論인 것이다.

比較優位原理를 根幹으로 하는 對外指向戰略이 論理的 當爲性이 있다면 이와 對照的으로 輸入代替戰略은 自主主義의 本能에 대한 呼訴力이 強하다. 이러한 理由로 中南美諸國과 印度를 爲始한 東南亞國家들, 東歐의 社會主義國家들은 일찍부터 輸入代替戰略을 追求하여 왔으나 共通的으로 不振한 經濟發展을 記錄하였고 그 結果 알제티나, 브라질, 콜롬

비아, 멕시코 등의 開途國은 60年代中盤에 對外指向的 政策改革을 보았고 헝가리와 같은 社會主義國의 經濟도 市場化의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³⁾.

2. 對外指向的 產業支援戰略

產業開發政策의 役割은 產業開發을 爲한 資源動員을 圓滑히 하는 한편 動員된 資源의 效率的 產業間 配分을 圖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後者和 같은 役割의 履行手段을 產業支援이라고 할 수 있다.

前節의 論議에 의하면 資源의 效率的 產業間 配分의 原則은 國際的 比較優位에 順應하는 產業構造의 追求라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產業支援의 役割은 國際的 比較優位에 立脚한 産業化를 誘導하는 것이다.

原則的으로 比較優位에 立脚한 産業化 誘導는 市場의 機能이다. 國內外的 經濟與件은 恒時 複雜하게 變하고 있고 또한 그 復雜度는 增加一路에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比較優位原理가 市場에서 作用한다는 것은 多幸한 일이다. 그것은 政府 또는 特定機關의 科學的 分析能力 및 管理能力이 極히 制限되어 있어 政府의 能動的 市場管理에는 危險負擔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물론 市場은 初級比較優位理論에서 假定하는 만큼 完全하지 않으며 市場의 不完全은 政府의 介入을 正當化한다.

產業支援은 바로 이러한 介入의 手段인 것이다. 市場經濟理論에 依할 때 政府는 公共財의 適正生産以外에도 規模經濟生産 및 外部經濟生産의 適正化, 人爲的 市場歪曲의 除去 등을 爲하여 市場에 介入할 수 있다⁴⁾. 이러한

2) Keesing(1979) 참조.

3) B. Balassa(1980a) 참조.

4) Musgrave(1959) 참조.

理論에 비추어 市場自律下의 産業支援은 다음과 같은 目標을 갖는 것으로 整理할 수 있다.
가. 幼稚産業의 育成

産業間의 差別的 優待支援의 原則的 境遇이다. 새로운 生産活動의 初期에는 損失을 보기 마련인데 그것은 經營 및 生産技術의 習得 또는 有名競爭者에 대한 知名度劣位克服에 時日과 經驗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成長初期의 産業 即 幼稚産業에 대해서는 市場自律的 投資가 不在하던지 또는 不足할 수 있다. 即 私的 危險負擔이 過大하든지, 將次的 利潤을 市場이 過少評價하든지, 習得技術에 外部經濟效果가 있던지 혹은 資本市場의 不完全으로 初期財政이 不可할 境遇가 그것인데 이러한 境遇에는 特別優待支援이 正當化된다⁵⁾.

幼稚産業支援論은 매우 操心스럽게 消化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우선 모든 産業이 成長初期에는 幼稚産業인 反面 幼稚産業支援은 極히 制限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優待支援이 모든 産業에 適用된다면 言語概念上的 矛盾이 될 것이다. 經濟概念上으로 보자면 優待支援은 制限된 資源을 주어진 部門에 보다 더 割當하고 反面 餘他部門의 몫을 줄이는 것이므로 모든 産業에 대한 優待支援은 不可能하다.

이것은 即 優待支援은 選別的 政策이며 또한 對象이 制限될수록 效果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效果的 幼稚産業育成을 爲해서는 優待支援對象産業을 受惠要件에 따라 엄격히 審

査하여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期待되는 技術向上速度와 初期費用의 相對的 低位度등을 考慮하여 嚴選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重要한 但書는 幼稚産業의 支援이 限時的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幼稚産業支援의 論理上 當然하다. 나아가서 幼稚産業支援은 時間의 經過에 따라 豫示的 段階的으로 縮少되는 規模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⁶⁾. 이것은 幼稚産業의 成長을 確認하는 意味가 있다.

나. 外部經濟源의 支援

情報開發, 技術開發 및 人力養成은 外部經濟效果가 있음으로 支援對象이 된다.

工業化自體도 間接的으로 이러한 機能이 있음으로 工業全般에 대한 支援이 正當化되려는 主張도 있으나 本格的 工業化過程에서 唯獨 工業部門만 그러하기에 대해서는 懷疑가 强하다⁷⁾.

다. 規模經濟의 支援⁸⁾

交通, 電氣 등의 公益産業, 各種重化學工業에 혼한 規模經濟는 費用遞減現象으로 因해 獨占生産體制를 誘導하며 이러한 獨占化는 經濟效率上 正當化된다. 同時에 適正價格誘導를 包含하여 獨占規制가 必要하다. 이때 適正價格은 平均生産費用보다 낮은 限界生産費用이며 따라서 政府의 補助가 있어야 하되 물론 이러한 政策의 基本的인 前提는 適正生産時의 國內 平均生産費가 輸入價格보다 낮다는 것이다.

라. 人爲的 市場歪曲의 對處

市場에는 人爲的 獨寡占, 價格의 硬直, 社會政策的 各種施策등의 人爲的 歪曲要因이 許多

5) Little, et, al (1970) 참조.

6) Balassa (1977a) 참조.

7) Little, et, al(1970) 및 Keasing(1979) 참조.

8) Little, et, al(1970) 참조.

하다. 이에 대한 最善策은 歪曲要因의 除去이고 次善策은 그 相殺을 위한 政府介入이다.

人爲的 市場歪曲의 許多한 境遇는 政府의 經濟施策에 基因한다⁹⁾. 商品市場에서의 各種 價格規制 및 關稅와 輸入規制등의 輸入障壁이 그 例이다. 輸入障壁은 高費用企業에 의한 輸入代替를 促進하고 輸出産業을 阻害한다.

資本市場을 보면 높은 인플레이션의 金融資産에 對한 實質利子의 不安定性, 名目金利水準의 抑壓 및 與信配給등의 歪曲이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不安定性을 意味하며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에서는 金融資産에 대한 實質利子의 動요가 크고 이로 因해 金融仲介活動이 萎縮된다.

높은 인플레이션하에서 名目金利를 낮게 維持하는 政策으로 實質金利가 마이너스가 되는 境遇가 許多하다. 이것은 물론 貯蓄을 阻害하고 또한 海外投資를 助長한다. 게다가 低利潤投資를 助長하여 貯蓄不足과 國際收支逆調를 深化시키고 資本集約度を 提高시키고 輸入代替를 促進하여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킨다. 企業財務構造의 惡化도 그 한 結果이다. 低金利下에서는 與信配給이 不可避한데 與信配給은 金融의 生産의 活用을 阻害한다. 그 理由는 與信配給下에서는 與信取及單價의 考慮로 因해 大企業이 有利한 立場이 되고 信用度의 考慮로 因해 過去 貸出實績이 많은 企業이 有利하며 또한 擔保能力이 큰 獨占業者나 富者가 有利하며 知名度가 높은 企業이 有利하여 創意的 活動에 대한 與信이 阻害되기 때문이다¹⁰⁾. 또한 與信配給制下에서 私債市場

이 發達하는 것은 물론이다.

勞動市場에는 最低賃金制, 勞動組合 등으로 因한 歪曲이 있어 勞動力의 活用을 阻害한다.

以上과 같은 여러 市場歪曲의 經濟施策은 價格機能抑壓을 共通의 性格으로 갖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最善對策은 大體로 自由化 혹은 自律化인 것이 特徵이다. 即 輸入障壁은 縮少 廢止하되 必要에 따라 對應하는 國內支援을 設定하고 資本市場에 대해서는 名目金利를 期待인플레이션보다 높게 두는 同時에 財政緊縮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며 아울러 私債市場을 陽性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勞動市場에 대해서는 雇傭에 대한 直間接補助의 提供, 雇傭規制의 緩和 및 勞使關係의 適正化誘導등이 바람직하다.

以上の 論議를 檢討하여 볼 때 對外指向의 産業開發戰略下의 差別的 産業支援은 大體로 幼稚産業育成과 國際競爭力이 있는 規模經濟 産業의 規制 및 支援에 目標을 두어야 할 것임을 結論지을 수 있다. 反面에 情報開發, 技術開發 및 人力開發등에 對한 支援은 一般的 産業支援의 分野라고 할 수 있다. 또 나아가서 産業支援以前段階에서 對外指向戰略은 經濟全般에 걸친 自律化를 要求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韓國工業化의 評價와 展望

1. 開途國의 典型的 産業化 過程¹¹⁾

戰後 20餘年間 開途國은 一般的으로 輸入代替를 經濟開發戰略으로 삼아왔다. 輸入代替는

9) 以下關聯部分 Balassa(1977a) 참조.

10) McKinnon(1980) 참조.

11) 本節은 주로 Balassa(1980a)의 要約이다.

大體로 容易한 初期段階과 產業開發이 不振한 後期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初期段階의 輸入代替는 衣類, 신발 家庭用品등에 걸친 非耐久性 消費財와 纖維, 가죽, 木材 등의 同原材料에서 이루어지는데 開途國들은 이러한 非耐久性 財貨에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製品들이 單純勞動集約的이고, 部品供給의 需要, 適正生産規模, 生産技術水準등이 모두 낮기 때문이다.

단지, 이 段階에서 開途國들은 比較優位條件上 必要없이 높은 保護를 쌓아 高費用企業을 生成시키고 國內生産一般을 高費用化하며 나아가서는 輸出을 阻害하는 愚를 犯한다.

다음 段階에서는 輸入代替 自體의 限界에 早晚間 부닥치게 된다¹²⁾. 즉, 非耐久性消費財의 輸入代替가 完了되면 여러가지 中間財와 耐久財에서 輸入代替가 試圖되는데 一般的으로 開途國들은 이 分野에 比較優位가 없는 것이다.

中間財와 耐久財는 一般的으로 規模經濟의 現象이 強해서 適正生産規模가 크고 管理 및 技術上的 非能率의 代價가 크다. 石油化學, 鐵鋼 등의 中間財는 매우 資本集約的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機械와 같은 耐久生産財, 自動車, 冷藏庫 등의 耐久消費財의 境遇 規模經濟效果는 施設規模에 있는 것이 아니고 大量生産下에 可能한 適正規模의 獨立工場間의 水平的, 垂直的 分業을 통한 各種部品の 標準化와 大量生産에 있는데 耐久財部品은 精密度와 技術水準이 높아 熟練勞動 및 技術人力 即 人的 資本에 대한 需要가 높다. 그러나, 開途國은 國內市場이 相對的으로 狹少하고 物的資本과 人的資本이 不足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처럼 不利한 條件下의 輸入代替는 當然히 높은 生産費用을 超來하고 同時에 材料 및 部品에 대한 不可避한 輸入依存으로 因한 外貨 需要도 크다. 勿論, 高費用生産은 他製品의 輸出條件을 不利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狀況을 持續시켜 주는 것이 對外保護障壁인 것이다.

不幸히도 輸入代替投資가 일단 始作되고 나면 어떠한 代價를 치루고라도 輸入代替를 遂行시키겠다는 傾向이 擡頭되는 데, 물론 輸入代替는 점점 比較劣位가 強한 分野로 擴大되어 保護障壁은 強化되고 永久化되며 이로 因한 輸出 및 經濟成長에 대한 沮害效果는 持續的으로 커지는 것이다.

無理한 輸入代替는 많은 問題와 市場歪曲의 인 政策을 誘發하게 되는 데 이들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 名目保護率의 産業間 不規則性과 歪曲의 産業間 實效保護效果
- 輸入代替投資를 爲한 마이너스의 實質金利維持와 特惠金融의 登場
- 全般的으로 價格機能이 抑壓되고 輸入規制, 金融配給 등의 方法이 普遍化됨.
- 國內市場에서는 獨寡占化가 助長되어 消費者嗜好는 無視되고 部品生産專門化가 沮害되며 品質向上 및 生産性增大要因이 弱화됨.
- 마이너스의 實質金利, 高費用生産으로 因한 所得減少 및 資本係數의 增加등으로 貯蓄不足이 深化됨.
- 높은 輸入依存度, 낮은 輸出伸張率, 무리한 高成長推進 등으로 外換危機가 잦음.

이처럼 成長不振, 國際收支危機 등의 反復에 處해 輸入代替의 限界를 느끼게 되자 이미 앞

12) 第Ⅱ章 第1節 끝 部分 參照.

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開途國이 對外指向戰略으로 轉換한 바 있다.

政策轉換의 基本方向은 價格歪曲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實質水準에서 安定化 시키는 同時에 또 그 産業間隔差를 줄이는 데에 있다. 具體的으로는 保護貿易障壁의 縮少, 工產品輸出의 支援, 換率의 流動化, 實質金利의 플러스화 및 價格의 一般의 自律化이다. 여기에서 輸出支援은 輸出特惠라기 보다는 各種 輸入代替의 施策으로 인한 輸出差別待遇效果를 相殺하여 주는 意味를 갖는다.

이와 같은 對外指向轉換은 곧 生産單價의 下落 및 資本係數의 下落으로 인한 生産과 雇傭의 增大, 外資流入의 增大등의 巨視的 反應을 가져오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2. 韓國의 70年代 産業政策

韓國은 1960年을 前後해서 初期輸入代替를 完了하였고 以後 成長不振과 政策改革試圖의 過度期를 거쳐 本格的 高度成長期에 進入하였는데 最近까지 持續되었던 高度成長과 工業化는 대체로 60年代 中般(1964~67)에 取해졌던 다음과 같은 一聯의 對外指向的 自律化措置에 基盤을 둔다고 하겠다¹³⁾.

- 換率의 單一化
- 換率의 流動化 및 其他 輸出支援의 強化 措置
- 金利現實化
- 稅制改善, 通貨緊縮, 財政均衡化 등을 통한 經濟安定化
- 「네거티브·리스트」에 의한 輸入制限制度

의 採擇 및 關稅保護縮少

• 外資導入의 擴大

以上の 措置들로 因하여 韓國經濟는 輕工製品 輸出의 急激한 伸張下에 높은 成長率을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73年 前後의 外部衝擊期를 겪으면서 韓國의 經濟政策은 큰 變化를 보았다.

當時의 外部衝擊은 72年~74年の 海外 原資材價 및 原油價의 暴騰, 75年~76年の 世界的 不況, 그리고 先進國의 工產品輸入規制의 強化傾向등이다. 또한 當時 우리는 自主國防의 強化를 위한 防衛産業의 必要性和 아울러 豫想되는 國際比較優位版圖의 變化에 따라 所謂 工業構造高度化의 必要性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政府는 中東進出을 包含한 外貨市場多邊化를 積極 推進하는 同時에 輕工業脫皮를 위한 産業構造改編을 強力히 推進하였다. 即 政府는 各種重化學業種의 育成 計劃과 또 이를 위한 여러 租稅·金融上의 支援政策을 廣範圍하게 마련하고 企業의 投資計劃에 깊이 干涉하기 始作하였다.

〈表 1〉 輸入自由化의 推移

年 度 ¹⁾	總品目數	輸入目動 承認品目數	自由化率(%)
1968	1,312	756	57.6
1972	1,312	668	50.9
1973	1,312	683	52.1
1974	1,312	665	50.7
1975	1,312	644	49.1
1976	1,312	669	51.0
1977	1,312	691	52.7
1978	1,097	673	61.3
1980	1,010	693	68.6
	7,465	5,183	69.4
1981	7,465	5,579	74.7

註: 1) 下半年 基準.
資料: 商工部, 期別公告.

13) 金光錫등(1976) 참조.

70年代의 이러한 重化學工業化政策은 當時부터 豫見되던 動的인 比較優位의 變化에 비추어보아 趣旨面에서 極히 適切한 政策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意圖에도 不拘하고 政策內容은 앞에서 論議했던 後期輸入代替性이 強했고 그以後 露呈된 政策效果도 後期輸入代替過程의 그것과 別差가 없었던 것이다. 即 政府

는 各業種에 廣範圍하게 介入, 支援하며 企業活動을 指示하였고 그 結果 各種 인센티브가 業種間多岐化를 겪었으며 名目金利가 낮게 維持되는 同時에 金融配定과 優待金利가 濫用되었다.

輸入代替의 主要手段인 保護貿易障壁의 強化도 있었다. 即 <表 1>에 보인 바와 같이 73년부터 77년까지는 輸入自由化가 停滯 내지 縮少되었고¹⁴⁾ 金光錫과 웨스트팔(1976)에 의하면 1973년의 關稅調整의 結果로 重化學工業製品과 同中間財의 關稅率이 引上되었던 것이다.

70年代 重化學政策이 無理했던 점은 優待支援의 基準이었던 重化學이라는 概念이 比較優位理論의 觀點에서 單一産業分野가 아닌 데서도 나타난다¹⁵⁾. <表 2>를 보면 重化學工業에 같이 包含되는 金屬, 機械, 化學, 鐵鋼分野의 産業들의 要素集約度가 極히 相異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輕工業과 重化學工業이라는 劃一的 分類의 無意味 내지는 危險性を 말할 뿐 아니라 또한 當時의 包括的 重化學化推進政策이 開放經濟的 順理를 無視한 政策發想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輸入代替過程의 論議의 한 教訓은 그릇된 産業政策은 巨視的 政策手段을 硬直化, 歪曲시키고 끝내 成長과 安定을 威脅한다는 것이다. 70年代의 重化學工業政策의 結果 새로운 業種의 育成效果도 없지 않았으나 同時에 인플레이의 惡化와 輸出競爭力의 喪失이 助長되었고 以後 79年~80年의 深刻한 不況이 倒來하였음은 그 한 예이며 또한 將次의 産業開發戰略을 爲한 重大한 教訓이다.

<表 2> 主要製造業種間 要素集約度 比較

(1968年度 獨逸製造業 基準)

			人的資本 本/物的資本	單純勞動的資本 (순위)
輕	金	屬	2.243	5
신	발	類	2.016	4
革	製	品	1.608	1
一	般	機	1.595	11
精	密	器	1.551	6
電	氣	器	1.551	9
造		船	1.410	16
木	製	品	1.124	7
樂器·玩具·寶石·運動用品			1.115	3
유		리	1.088	15
고	무	· 石	1.080	13
印		刷	1.072	14
金	屬	製	1.058	8
플	라	스	0.938	12
陶	磁	器	0.976	10
衣		類	0.764	2
化		學	0.748	25
織		維	0.617	17
가		죽	0.612	18
輸	送	機	0.581	20
鐵		鋼	0.567	23
非	鐵	金	0.536	21
窯		業	0.448	22
製		材	0.402	19
펄	프	및	0.391	24
	중	이		
平		均	0.869	

資料 : Balassa(1977c).

14) 國內인플레이의 加速으로 1978년에는 輸入自由化가 큰 進展을 봄.

15) Balassa(1977c) 참조.

3. 韓國의 動態的 比較優位와 幼稚產業

60年代에 勞動集約的 輕工製品의 輸出商品化로 對外指向的 工業化에 成功했던 韓國, 臺灣 등의 所謂 新興工業國 혹은 中進開途國들은 70年代初以後 새로운 對外指向戰略段階에 접어들게 되었다. 即 그들의 國際比較優位가 變化를 겪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들의 比較優位가 單純勞動集約的인 輕工消費財 및 同中間財에서 鈍化되고 있다. 韓國의 경우에는 國內勞動의 高價化이다. 最近 不況의 直接的 發端은 70年代後半의 賃金の 急上昇이었으며 이것은 失業率의 持續的 減少로 雇傭擴大라는 成長源이 거의 없어지는 段階에도달했으며 低賃金이라는 輕工業化條件이 脫皮되고 있음을 말한다.

다음 國際市場의 與件이 韓國 등 新興工業國의 勞動集約製品에 對한 比較優位弱화를 促進하고 있다. 即 印度, 필리핀, 中共 등 單純勞動의 賦存이 相對的으로 보다 豊富한 나라들이 新興工業國들을 追上할 潛在力과 形勢를 보이고 있고 또한 先進國의 對新興工業國保護 貿易政策이 이러한 傾向을 強化시켜주고 있다¹⁶⁾.

比較優位는 移轉된다. 즉 以上の 推勢는 工業化段階와 關聯시켜 國際比較類型을 高低段階化할 때 新興工業國들의 比較優位가 高段階化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이제 韓國 등의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은 勞動

力의 教育水準과 熟練潛在力이 커서 即 人的 資本開發의 餘地가 커서 人的 資本集約的인 商品으로의 比較優位移轉을 겪고 있는 것이고 反面 南美 新興工業國들은 物的 資本集約的인 商品으로의 比較優位移轉을 겪고 있으며 先進國들은 一般的으로 高度技術集約的인 製品에서 強한 比較優位를 確保하고 있는 同時에 人的 및 物的 資本集約的 製品에서 新興工業國과 比較優位를 共有하게 되는 것이다.

比較優位의 變化는 반드시 比較優位產業의 名稱을 바꾸지는 않는다. 例컨데 韓國의 比較優位가 人的 資本集約的 製品에서 強化되고 있음은 韓國이 纖維, 衣類 등의 從來의 主宗輸出品에서 그 品質을 높힘으로서 國際競爭力을 維持 또는 強化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¹⁷⁾.

또 <表 2>에 依하면 將次 韓國의 比較優位는 輕金屬製品類, 一般機械, 精密機器, 造船 등으로 構成되는 機械分野에서 가장 빨리 開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現在 이러한 機械分野가 韓國의 가장 有望한 幼稚産業임을 意味한다¹⁸⁾.

IV. 産業支援의 現況

1. 産業支援의 手段과 調整

主要産業支援手段은 <表 3>과 같이 整理될 수 있다. 現在 이러한 여러 支援手段이 實質的으로 各部處 및 部處內 機關에 分散 運營되고 있고 各手段別 機能도 分業化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一貫된 産業開發政策遂行을 沮害하고 있는 가장 重大한 要因의 하나일 것이다.

16) Chenery & Keesing(1979) 참조.

17) Balassa(1977c) 참조.

18) 前掲書들 以外에 Balassa(1980b) 참조.

따라서 各種政策手段의 運營指針을 總體의 樹立하는 部處間綜合協議決定機構의 設定은 重要한 產業政策改善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下에서는 各種支援手段의 現況과 問題點을 概略의 檢討한다.

2. 輸入制限

<表 1>에 提示한 바와 같이 現在 韓國의 輸入自由化率은 75%水準이고 78年度 以後에는 輸入自由化의 進展이 다소 빨랐다. 現在 輸入自由化된 것으로 計算되는 品目の 20%程度는 對日輸入을 抑制받는 輸入先多邊化品目 및 輸

<表 3> 主要產業支援手段의 分類

政策分野	政策手段
貿易 및 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制限 • 保護關稅 • 企業規制
租 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國稅 減免 • 關稅減免
財 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工行政 • 施設支援 • 出資 및 經營參與 • 基金의 助成 및 運營 • 補助
金 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融配定 • 金利優待

<表 4> 臺灣의 輸入自由化過程

	(단위 : %)
	輸入自由化率
1970	62.5
1971	81.6
1972	82.5
1973	96.5

資料 : 國際經濟研究院

入監視品目이다. 自由化의 이러한 速度와 水準은 日本 혹은 臺灣<表 4>의 例에 비추어 지나치게 느리고 낮다. 即 韓國은 競爭國들에 비교하여 開發手段으로서의 輸入自由化를 지나치게 消極的으로 活用하고 있다.

輸入自由化에 對한 消極的 立場은 다음과 같은 現行輸入自由化要領에 잘 나타나 있다¹⁹⁾.

- 輸入制限의 實効性이 없는 品目の 自由化
- 關稅率의 調整으로 自由化가 可能한 品目の 自由化
- 景氣狀況과 奢侈品에 있어서 國民感情의 問題가 豫想되는 品目の 自由化 猶豫
- 輸入監視를 通한 不要不急品目 및 奢侈品의 實質的 輸入抑制

前章에서 우리는 極히 限定된 境遇以外에는 産業別 支援이 不必要하며 支援對象이 되는 幼稚産業과 規模經濟産業의 境遇에도 輸入制限을 避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보았다. 이러한 原則에 비추어 위의 輸入自由化要領(특히 첫째와 둘째項)은 正反對의 政策意圖를 反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輸入制限은 選別的 支援의 次善策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는 데 이런 意味에서의 輸入制限은 幼稚産業에만 展限시켜야 하되 반드시 限時的 豫示的으로 適用하여야 한다.

세째項에서 國民感情의 問題가 言及된 것도 消極的 政策意志를 反映하는 施策이라 하겠다. 國民은 經濟現象에 많은 誤解를 갖지만, 이의 對應은 克服하는 것이지 迂迴하는 것이 아니다.

네째項은 可能한 限 많은 品目を 國產化하겠다는 慢性的 不完全雇傭下의 政策發想이며 舊態依然한 輸入代替精神의 發露이다. 輸入抑制는 國內生産을 促進한다. 오늘날 國內資源의

19) 商工部

不足을 느끼는 우리로서는 不足한 資源을 不要不急品目 및 奢侈品의 生産에 非効率的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比較優位分野의 生産에 活用하여 輸出을 擴大하고 增大된 輸出所得의 一部로 不要不急한 品目을 輸入하여오는 것이 보다 利로운 行爲이며 또한 國際收支의 好轉을 期하고 非常時의 輸入緊縮의 餘裕를 마련하는 方法이기도 하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볼 때 우리는 早速히 産業全般에 걸친 輸入自由化를 向後 3~4년에 걸쳐 全面的으로 實施하되 嚴選된 幼稚産業에 對한 輸入自由化만을 6~7년에 걸쳐 履行하는 方針을 眞摯하게 考慮할만하다.

別途의 資料에 依하면 産業別 輸入自由化現況에도 輸入制限政策이 對外指向戰略에 逆行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輸入自由化率이 食飲料, 纖維, 衣類 등의 輕工分野와 機械分野에서 特히 낮은 그 좋은 例이다.

3. 保護關稅

現在 通關實績에 依한 平均法定關稅率은 1971年以後 11%代에 머물러 있고(表 5) 關稅는 一般政府收入의 15%內외의 單單치 않은 比重을 갖고 있다(表 6). 關稅도 輸入代替를 促進하고 輸出을 沮害하는 만큼 關稅率을 可能的한

〈表 5〉 法定關稅率 및 關稅徵收의 推移

	法定關稅率	實績關稅率	關稅減免比
1968	25.8	9.4	63.6
1973	23.8	4.9	71.4
1975	11.5	5.1	55.7
1980	11.1	5.6 ¹⁾	49.1

註: 1) 關稅減免은 輸出用 原資材 輸入에 對한 關稅還給의 推定值을 包含함.

資料: 金光錫·워스트랄(1976), 關稅廳.

한 더 引下하여 財政依存度를 낮추는 同時에 輸出支援도 縮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法定基本關稅率은 大部分 60%以下이고 80%~150%帶에 CCCN 4單位 29個品目이 包含되는데(表 7) 이들은 커피, 초코렛, 酒精, 麥酒, 담배, 鴉片, 귀금속 등과 같은 所謂 奢侈品들이다.

奢侈品에 對한 關稅는 輸入代替를 促進하여

〈表 6〉 一般政府의 歲入構成

(단위: 億원, %)

	1978		1979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總收入	40,405.5	100.0	55,073.3	100.0
國稅 및 防衛稅	33,722.6	83.5	44,017.1	80.0
內 國稅	22,525.5	55.8	30,375.1	55.2
關稅	6,464.3	16.0	7,322.9	13.3
防衛稅	4,732.9	11.7	6,319.0	11.5
專賣益金	2,800.0	6.9	3,600.0	6.5
稅外收入	1,140.9	2.8	1,676.6	3.0
預收金	75.0	0.2	83.0	0.2
借款收入	822.2	2.0	905.6	1.6
其他	1,844.8	4.6	4,791.0	8.7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表 7〉 法定基本關稅率의 分布

關稅率(%)	CCCN 4單位基準 品目數	
	構成比(%)	
0	153	6.9
5	73	3.3
10	249	11.3
15	252	11.4
20	653	29.6
25	68	3.1
30	299	13.5
40/60	416	18.8
80/100/150	29	1.3
從量稅	17	0.8
計	2,209 ¹⁾	100.0

註: 1) CCCN 4單位 同一品目(總 1,010個)도 相異한 關稅率의 發生數만큼 重複計算되었음.

資料: 財務部

國內資源使用의 非効率化를 超來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奢侈品에 對해서는 消費를 直接 抑制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實上 이러한 見地에서 所謂 奢侈品目에 對해서는 特消稅가 賦課되고 있으므로 高關稅制度는 資源浪費와 아울러 二重課稅의 效果를 갖고 있다. 따라서 高關稅率의 廢止가 合當한 政策일 것이다.

關稅率의 構造는 産業別 品目別로 多岐한 바 이것은 産業政策全般에 걸친 歪曲現象의 一面으로서 産業支援體制의 改編과 併行하여 均一化를 圖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輕工業, 特히 飲料, 纖維, 衣類 등의 關稅率이 特히 높은 것은 留意하여 불만하다.

4. 企業規制

輸入自由化 및 關稅引下는 直接的 企業規制 등과 아울러 國內價格 및 企業規制의 強力한 手段이지만 輸入管理 및 關稅政策의 이러한 役割은 認識이 안되어 있는 實情이다. 가령, <表 8>에 依할 때 生必需品 및 獨寡占의 國內製品은 國際競爭에 開放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오히려 平均보다 더욱 높은 保護를 받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關稅率表에 依하면 라면(60%), 化學조미료(60%), 메리야스內衣(60%) 등 수많은 生必需品, 化學조미료, 라면, 선풍기(50%), 판유리(40%), 화장품(60%), 綿內衣(60%), 電子時計(50%) 등 수많은 獨寡占의 製品에 높은 基本關稅率을 賦課하고 있다.

5. 實効保護效果

輸入障壁 및 國內價格規制의 産業間 多岐性 및 無一貫性은 産業別 實効保護率의 多岐性에 反映된다²⁰⁾. 貿易·産業政策의 改善은 實効保護率의 均一化를 指向하되 原則的으로 限時的으로 保護받는 幼稚産業以外에는 實効保護率이 零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關稅減免

關稅減免(關稅還給包含)은 輸出支援을 主要機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외에도 國內重

<表 8> 生必需品와 獨寡占品目에 대한 輸入制限現況

	企劃院 指定 總品目	該當 CCCN8-digit品目 分類 基準				
		總品目	輸入 自動承認	協會 或 長官의 輸入 추천필요	輸入要領 別途公告	輸入自由 化率, %
價格特別管理品目(生必需品)	50	123	63	24	36	51.2
公正去來法指定의 市場支配의 事業者 品目	42	80	44	28	8	55.0
年 生産規模 100億원 以上 市場支配力 行事可能 品目	64	132	86	20	26	65.2
全 產 業		7,465	5,579	—	—	74.7

20) 南宗鉉, 『韓國의 産業誘因政策과 産業別 保護構造分析』, 韓國開發研究院, 研究調查報告 81-10卷, 1981. 9, 참조.

要産業支援을 爲始하여 여러 가지 關稅減免條項이 있어 <表 5>에 依하면 關稅減免比는 50%에 達한다. 이것은 法定關稅率이 無意味하게 높은 反面 關稅減免으로 因한 歪曲이 深刻함을 意味한다. 法定關稅率의 全般的인 引下와 더불어 特定國內産業에 對한 關稅減免特惠를 廢止하면 産業間 支援均一化와 더불어 關稅減免의 縮少가 이루어질 것이다.

7. 內國稅減免

內國稅減免은 10가지 以上의 法에 依하여 複雜多端히 規定되어 있다. 稅種類別 減免構成은 <表 9>에 보인 바와 같다.

間接稅減免은 主로 外貨獲得用財貨에 對한 特消稅의 免除이다. 租稅減免은 壓倒的으로 租稅減免規制法에 依存하는데 特히 直接稅의 境遇 그러하다. 直接稅減免中 租稅規制法指定 14個 重要産業에 對한 79년도 直接稅減免比重 37%는 相當한 偏重이라고 볼 수 있다.

8. 財政事業

經濟開發事業費는 輸送, 通信, 電氣 등의 公益事業과 農水産開發에 大部分 쓰여지고 20% 未滿의 工業配定의 大部分이 重化學工業支援費이다.

9. 金融支援

總資金貸出은 總殘額 構成比로나 附加價值 對比로나 製造業에 偏重되어 있다. 個別的으로는 化學以外의 重工業, 輕工業輸出業種 및 電氣事業에 몰려 있다.

<表 10>에 依하면 總貸出중 低利政策金融은 적어도 50% 水準이고 平均利差는 78年末의 9.0%에서 80年末의 3.0%로 大幅減少되었다.

政策金融制度는 우선 複雜하고 不安定한 構造를 갖추고 있다. 政策資金의 半程度는 外貨貸出 및 輸出支援金融으로서 一般銀行에 依하여 取及되고 그 나머지가 産業開發資金이라 하겠다. 또한 産業開發資金의 半程度가 製造

<表 9> 國稅減免現況

(단위 : 億원, %)

	1978		1979	
	減免額	構成比	減免額	構成比
內 國 稅	2,121.7	55.0	4,148.6	66.1
直 接 稅	1,152.3	29.9	2,923.3	46.6
所 得 稅	402.6	10.4	633.2	10.1
法 人 稅	749.7	19.4	2,290.1	36.5
間 接 稅	969.4	25.1	1,225.3	19.5
酒 稅	39.6	1.0	43.5	0.7
特 消 稅	929.7	24.1	1,181.9	18.8
關 稅	1,732.9	45.0	2,127.9	33.9
國 稅(計)	3,854.6	100.0	6,276.5	100.0

資料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表 10> 低利政策金融의 資金供給 및 利子支援效果

(단위 : 億원, %)

	總 貸 出 ¹⁾	低 利 貸 出
1978年末		
年末殘額	93,127.0	47,112.7
(總貸出對比)	(100.0%)	(50.6%)
利子支援效果		4,587.8
平均利差		9.0%
1980年末		
年末殘額	184,078.5	89,677.6
(總貸出對比)	(100.0%)	(48.7%)
利子支援效果		3,409.0
平均利差		3.0%

註 : 1) 全 預金銀行, 韓國産業銀行 및 韓國輸出入銀行에 對한 利子.

業에 配定되는데 그중 大部分이 金屬 및 機械를 爲主로 하여 重化學에 配定되었다. 電氣 및 建設에 대한 資金支援도 크다.

10. 支援現況의 綜合

〈表 11〉에는 資金配定을 除外한 各種支援總額이 推定되어 있다. 總支援規模는 GDP의 10%規模이고 역시 財政支出이 가장 크고 다음 關稅還給에 의한 輸出支援이 크고 세째로 內國稅減免과 金利差支援은 비슷한 規模로 나타난다.

以上 本章에서 概略的으로 産業支援現況을 檢討한 바 그 結果를 根據로 70年代의 産業開發政策에 對한 批判的 見解를 假設的으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政策手段의 管理가 多元化되어 있어 産業政策의 一貫性을 沮害하고,
- 높은 輸入障壁으로 많은 産業에 걸쳐 輸入代替誘因이 강한 편이며,
- 政策金融의 比重이 過大하여 通貨政策의 效果的 遂行에 負擔을 줄 뿐 아니라 金融配分上의 歪曲이 深하고,

〈表 11〉 各種支援規模의 推計

(단위 : 億원)

	1978	1979
財 政 支 出	11,233.3	14,804.4
內 國 稅 減 免	2,121.7	4,148.6
• 直 接 稅	1,152.3	2,923.3
• 間 接 稅	969.4	1,225.3
關 稅 稅 徵 收 猶 豫	1,732.9	2,127.9
(輸 出 用 輸 入)	5,503.3	6,007.8
金 利 差 支 援	2,554.7	4,057.2
合 計	23,145.9	31,145.9
附加價值對比(%)	10.1	10.6

- 政策이 租稅, 金融의 面을 包含해서 一般的으로 選別性이 지나치고 各 인센티브의 業種別 差異가 커서 比較優位의 自律的 示顯이 抑制되고,
- 全重化學을 幼稚産業的 支援對象으로 보고 있어 幼稚産業支援效果가 크게 抑壓되었으며,
- 眞正한 幼稚産業支援對象으로 볼 수 있는 機械産業은 過多保護를 받는 印象이 強한데 特히 높은 輸入制限率은 逆效果가 있었다고 推測된다.

V. 産業支援政策의 改善方向

第Ⅱ章과 第Ⅲ章에서 우리는 韓國의 産業開發戰略이 對外指向的이어야 하며 또한 對外指向的 産業支援政策은 嚴選된 幼稚産業과 國際競爭力있는 規模經濟産業을 支援하는 以外에는 産業一般的이어야함을 確認하였고 또한 産業支援은 그 規模가 制限되어야 하고 韓國의 가장 有望한 幼稚産業은 機械産業이라고 主張하였다.

第Ⅳ章에서 우리는 70年代의 變化를 겪은 韓國의 産業支援體制가 全體的으로 對外指向的 産業支援戰略에 크게 逆行하고 있음을 具體的 資料에 依하여 確認하였다.

그렇다면 現在의 産業支援體制가 다음과 같이 改編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어렵지 않게 結論的으로 誘導될 수 있다.

- 各種 政策手段의 綜合的 運用指針과 産業開發戰略을 樹立하는 部處間協議·決定機構를 設置할 것.

- 輸入制限 및 關稅에 의한 産業保護를 果敢히 數年內에 걸쳐 縮少하고 보다 有意한 關稅率體系를 樹立할 것.
- 租稅誘因을 一般化하고 다음 分野에 걸쳐 境遇에 따라 強化할 것.
 - 施設, 技術 및 人力에 대한 投資
 - 品質管理, 에너지節減事業, 勞使關係 및 財務構造의 改善
 - 各種 外貨獲得活動
 - 對外開發資本進出
 - 外國의 資本, 技術 및 人力의 國內導入
- 嚴密히 檢討된 幼稚産業(機械類)育成計劃을 樹立하고 實施하되
 - 輸入制限으로 豫示된 限時的 保護를 주고,
 - 開發金融을 供給하여 주고,
 - 財政事業支援을 提供한다.
- 規模經濟가 강한 重化學分野의 大單位 投資는 政府의 中長期投資計劃管理下에 두되 制限된 財政支援을 實施한다.
- 工業部門의 産業開發金融(産銀資金 및 國民投資基金爲主)을 單一體系化하며 漸次 縮少하여 幼稚産業支援爲主로 한다.

▷ 參 考 文 獻 ◁

- 金光錫, 래리·웨스트팔, 『韓國의 外換·貿易 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6.
- Balassa, B., "Reforming the System of Incentives in Developing Countries," Balassa, *Policy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1977a.
- Balassa, B., "Incentives for Economic Growth in Korea" Balassa, *Policy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1977b.
- Balassa, B., "Korea's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Fourth Five-year Plan Period(1977-81)," Balassa, *Policy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1977c.
- Balassa, B., "The Changing Pattern of Comparative Advantage in Manufactured Good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 61, No. 2, May, 1979.
- Balassa, B., "The Process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436, 1980a.
- Balassa, B., "Korea During the Fifth Five-year Plan Period(1982-86), An Advisory Report," 1980b.
- Chenery, H.B., "Comparative Advantages and Development Policy," *Surveys of Economic Theory*, V. II, 1969.
- Chenery, H.B., & D.B. Keasing, "The Changing Composition of Developing Countries' Export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314, 1979.
- Corden, W.M., "Trade Policies," Cody, J., H. Hughes & D. Wall, eds., *Policies for Industrial Progress in Developing Countries*, 1980.
- Keasing, D.B., "Trade Policy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353, 1979.
- Little, I., T. Scitovsky & M. Scott, "Industry and Trade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1970.
- McKinnon, R.I., "Financial Policies," Cody,

- J., H. Hughes & D. Wall, eds., *Policies for Industrial Progress in Developing Countries*, 1980.
- Musgrave, R.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 Westphal, L.E., "Empirical Justification for Infant Industry Protection," (Mimeograph), 1980.